

‘형님’ 한명 만도...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 증액 예산 1373억
이상득의원 지역구 한곳만 1405억이나 늘려

‘형님의 힘’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전원보다 컸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의 해 예산안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남·울릉)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405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삼척 철도건설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 전철 520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20억원,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울릉도 순환도로 건설비 50억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등이다.

반면,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회 증액 예산은 모두 합쳐 1373억원에 불과, ‘형님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의 형님인 1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20명의 국회의원 지역구보다 많은 국고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실제로 8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광

주시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282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광주시가 간절하게 원했던 진곡산 단 진입도로 건설(100억원), 동광주 IC 확장 (20억원), CT연구원(42억원),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화 사업(50억원) 등의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은 무산됐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박지원)와 예결위 간사(서갑환)를 포함,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전남도 예산도 정부

안에 비해 1091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쳐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등 전남 현안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형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지난 7일 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파행된 직후,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측이 수정 예산안을 만들면서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특별히 챙기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에 방화 기간 결식 아동 급식예산과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증액된 ‘형님 예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형님 예산은 3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급호텔 ‘홀리데이인 광주’ 오픈 특급호텔 ‘홀리데이인 광주’가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오픈 기념식을 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홀리데이인 광주’는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이며, 프레지던트·한실 등 205개 현대식 객실을 갖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거리 나선 민주 “MB 정권 퇴진”

‘날치기 예산 원천무효’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 투쟁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주요 안건 단독 강행처리에 반발, 정권 퇴진론을 내세우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소수 야당으로서 한계에 부딪힌 민주당이 여론의 일방독주를 막아달라며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은 전날 4대강 날치기 예산·법안 무효화 100시간 대국민서명운동을 위해 전막을 친 서울광장에서 10일 최고위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여론 모으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새해 예산안을 부실·졸속으로 날치기 처리하면서 이른바 ‘실세 예산’은 챙기면서도 정작 여당이 약속한 서민·복지 예산은 빠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순환구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는데 급급해 형님 예산, 실세예산은 챙겼지만, 자기들이 꼭 지키고자 한 예산은 놓쳤다”며 “무능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텔레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메기 예산도 중요하지만 텔레스테이 예산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텔레스테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으며, 새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장외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여성 의원들이 이날 남대문 앞을 시작으로 ‘4대강 예산을 깎아 민

주당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라는 주제의 피켓시위를 매일 점심 시간에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여론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포폰 국정조사’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폐기’ 문제도 같이 거론, 대외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년 1월까지

해외출장 금지령도 내리는 등 내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내부에선 한겨울 ‘거리의 정치’가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의총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장외투쟁이 효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 나왔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내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 원내 투쟁을 병행기로 한 것도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역풍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현직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투숙해물뷔페 - 35,000
특별약인
*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최순연 · 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장 동반)
이당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개교 원서접수] 12월 17일~22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부모 노후, 정부·사회 함께 돌봐야”

광주 46%
전남 50%

■ 호남통계청, 2010 광주·전남 사회조사
학부모 10명 중 8명 “자녀 교육비 부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만 15세 이상 가구원 3978명(광주 1996명, 전남 19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0년 광주·전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광주 46.3%, 전남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족’(광주 37.5%, 전남 36.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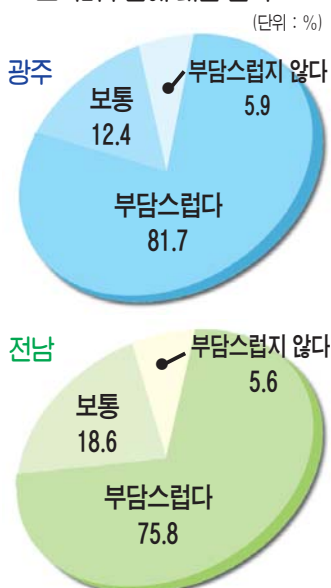
특히 전남에서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2008년 54.5%에서 올해 36.2%로 크게 감소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의 빠른 변화를 반영했다.

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로는 ‘모든 자녀’(광주 64.2%, 전남 52.6%)가 장남(13.2%, 24.7%)이나 ‘능력있는 자식’(14.1%, 14.7%)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족관계는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높았다. 남편이 부인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광주 68.1%, 전남 75.1%인 반면, 부인이 남편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광주 56.0%, 전남 65.3%로 부부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 광주시민 2명 중 1명(48.2%)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4명 중 1명(23.8%)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전남도민 64.6%(광주 58.0%)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답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결혼관도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



광주·전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8명(광주 81.7%, 전남 75.8%)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있으며, 보통교육비(68.5%, 67.0%)에 대해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녹색의 땅 전남

전출산 극복!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아기의 우렁찬 탄생의 울음소리는
“미래 녹색 전남”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